

제 이름은 마리엘라예요.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도 몰라요.



저는 한밤중에 몸이 아프다고 느꼈지만 다음 날 일하러 가야 했지요.



집에서 쉬었어야 했지만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았거든요. 저는 제 병이 손에 묻은 세균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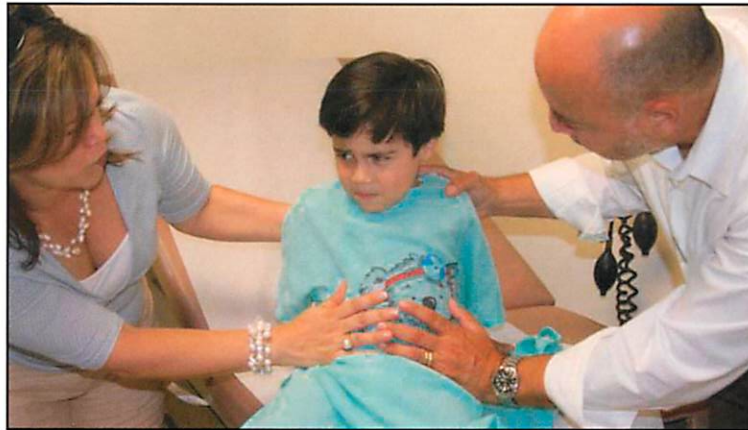
직장에서 저는 맨손으로 칩을 집었어요.



그날 아들의 4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. 그 아이의 이름은 호세 안토니오였습니다.



호세 안토니오는 제가 서빙하는 칩을 좋아했어요. 저는 몸이 다시 안 좋아져서 한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. 그 이후 저는 이틀을 더 앓았습니다.



제가 아파서 집에 있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보던 당국으로 투서가 들어갔어요. 20명이 넘는 손님들이 저희 식당에서 식사한 후 병에 걸린 거예요. 그들은 병에 걸린 손님 모두에게 제가 서빙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


다시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날 절대로 일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.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린 호세 안토니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. 그 아이가 저 때문에 고통을 겪었으니까요.

어디서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십시오:
질병에 걸리면 집에서 쉬십시오.

